

2017년
9월 15일
제 43 호



사우회보

서로 도우며
즐겁고
건강하게

●발행처 (사)문화방송사우회 04518 서울시 중구 정동길 3 TEL 02-722-7416 E-mail: mbcsau@mbcsau.com ● 발행인 이연현 ● 편집인 신대근 ● 편집장 김상옥

2017년 하반기 행사 일자 확정

낚시대회: 9월 22일(금) 06:00 등산대회: 10월 25일(수) 10:00
바둑대회: 11월 1일(수) 10:00 송년의 밤: 12월 14일(목) 18:00
골프대회 및 원로 문화탐방은 미정



사우회 2017년 하반기 행사가 낚시대회를 시작으로 12월 14일 송년모임까지 계속된다.

9월 22일 오전 6시에 열리는 낚시대회는 3일 전에 개최장소가 회원

들에게 통고된다. 이어 등산대회는 10월 25일(수) 오전 10시 우이동 아카데미 하우스 종점을 출발해 우이동 종점에 이르는 북한산 둘레길 일원에



서 열리며, 바둑대회는 11월 1일(수) 오전 10시 부터 사우회 사무실에서 개최된다. 골프대회는 아직 개최 날짜가 미정이나 일정이 결정되는

대로 회원들에게 통고될 예정이다.

사무처는 현재 방송 주변 환경이 계속 악화되고 있고 사우회 재정도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종 행사규모를 최소한으로 축소해서 개최할 방침이다.



사우회, 예다함상조와 업무협약 체결



사우회는 회원들의 복지 향상책의 일환으로 상조서비스회사인 "The · K예다함상조"(이하 예다함)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연현 사우회장과 김형진 예다함상조 대표이사는 8월16일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사우회 회원 및 가족 또는 회원들이 추천하는 분들이 예다함 상품을 이용할 경우, 선불제나 후불제에 상관없이 일정 비율의 할인혜택과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식에서 김형진 대표이사는 "예다함의 지급여력 비율은 114%로 업계 최고 수준이며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과 각각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동안 고객들로 부터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사우회원들을 정성껏 모시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표이사는 또 "예다함 직원들은 노잣돈을 내라는 등 추가로 돈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어떤 직원이라도 규정된 요금 이외의 수고료 등을 요구할 경

우 모든 행사비용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연현 사우회장은 "회원들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업체의 신뢰성"이라고 말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우회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협약의 구체적인 혜택내용을 보면, 회원들이 선불제(월납입식)로 계약할 경우 할부금 7개월분의 할인 혜택을 받으며, 후불제의 경우 후불제에 부과되는 10%의 할증료를 면제받고 추가로 3개월치 할부금 할인혜택도 받게 된다.

예다함상조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설립한 사업체로 상조회사 가운데 보유자산과 지급여력이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세한 혜택내용은, 상품가입(선불시)은 1566-6644(오전9시~오후6시), 장례 접수때는 24시간 상황실(후불시) 1566-0119로 전화하여 MBC사우회원, 가족, 지인 등을 얘기하면 된다.

우리 아이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

160개 직업체험 키자니아 서울 & 부산

KidZania Korea | MBC PLAYGE

☎ 1544-5110 🌐 www.kidzania.co.kr

★ MBC 임직원 및 사우회는 30% 할인

즐거운 어린이 체험 교육장 서울, 부산 MBC키자니아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가 2017년 상반기에 서울 7개, 부산 6개 총 13개의 신규 체험을 개발함으로써 No.1 브랜드로서의 위치를 굳히고 있다. '키자니아 서울'은 4월, 자신을 영상으로 소개하는 미래형 명함을 만드는 '스마트칩 명함 컴퍼니'를

오픈했고, 이후 고생물학자가 되어 보는 '화석복원연구소', '한의원', e-결제 시스템을 체험해 보는 'E-키조카드센터', 동물활동가가 되어 보는 '동물복지센터', 수의사 체험의 '동물병원', e-커머스 e-비즈니스를 배우보는 'E-커머스센터'를 연이어 선



보였다.

'키자니아 부산' 역시 '한의원', '화석발굴현장', '동물병원', 'E-커머스센터' 등 서울과 동일한 체험을 비롯해 미래형 교통수단인 '하이퍼루프'를 배우고 자기부상열차를 연구하는 열차공학자가 되어 보는 '열차공학 연구소', 3D 홀로그램 영상을 직접 만들어 스마트폰으로 시연해 보는 '3D 홀로그램 스튜디오'와 같은, 서

울과 다른 체험도 선보였다. 기초과학에서부터 미래형 직업까지 직업 범주를 다양화 시키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키자니아'. 진로교육의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데,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최상의 퀄리티로 올바른 체험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키자니아'의 목표와 이를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어떤 해프닝



홍 석 진(기술)

“지난달 19일 저녁이었다. 그날 광화문 일대에 60만 가까운 군중이 모였다. 경복궁역 지하 출구를 통해 내자동 로터리를 건넜다.

청와대 쪽으로 가는 자하문로 일대에는 차벽이 들어서 있었다. 좁은 보도를 따라 이면도로를 걷다가 신교동 로터리를 지나자 차벽이 끝났다. 경찰에게 물었더니 자하문 터널 밖에서부터 교통을 통제한다고 했다. '터널이 끝나는 데까지 찬 바람 맞으며 걷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길을 가는데 하얀 승용차 한 대가 곁에 와서 섰다. 운전자가 창유리를 내리더니 타라고 했다. 유리창에 '무료셔틀'이라고 쓴 종이가 붙어 있었다. 운전자는 세 사람을 더 태우더니 터널 밖까지 데려다 주었다. 교통비를 내려고 했더니 사양했다.

혹시 명함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손을 내젓고는 차를 돌렸다. 버

스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그가 다시 네 사람을 태우고 와서 내려 주고 차를 돌리는 걸 보았다. 이게 내 눈으로 확인한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다.”

위 글은 전前고려대학교 김민환 교수가 2016년 12월 1일자 중앙일보 중앙시평 “최순실 사태, 절망 그리고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쓴 글 중에서 발췌한 내용이고, 무료셔틀 승용차 운전자는 바로 나다. 사연인즉 이렇다.

지난해 10월 29일에 시작한 촛불 집회로 인해 청와대 근처는 버스와 승용차의 통행이 금지 됐다. 사람들은 먼 길을 돌아서 걸어야 했다. 청운동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만 그 구간 내 차량통행을 할 수 있었다.

어쩌다 청운동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나로서는 '나라가 어렵고 혼란한 시기에 불편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토요일 집회때마다 그들의 발이 되는 “무료셔틀 기사”가 되기로 했다.

“무료셔틀”이라는 쪽지를 차 유리창에 붙이고 길이 막혀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을 태워서 언덕이 있는 자하문 터널구간을 왕복하여



오고 가는 일을 반복했다.

얼마 후 동네사람 2명이 더 합세하여 '청운동 무료 셔틀운행 봉사'는 주말마다 행해졌다. 강남으로 가는 전경차를 놓친 전경, 송파구에 사는 아저씨, 고창에서 온 대학생, 태극기 집회 아줌마 등 다양한 고객(?)들을 부지런히 태워 날랐다. 경찰관도 사람들을 태워달라고 세우고, 어떤 경관은 '차비로 천원은 받냐'고 물어 보길래, 무료라는 부분을 가리키니까 멋지게 웃었다.

중앙일보에 기사가 실린 것도 차를 타신 분이 알려줘서 알았다. '구 의원으로 나오면 찍어준다'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어떤 이는 고구마, 빵을 건네기도 하고, 여러 번 타신 분은 손수 담근 과실주를 강권하는데 성의를 거절하기가 어려워 받은 적도 있다.

태극기집회에 참석한 아줌마 두 분이 탔을 때 '나는 골수 진보파고

아내는 골수 보수파라서 5년마다 한 번씩 대판 싸움을 한다'고 하니 파안대소를 한다.

젊은 학생들이 탔을 때는 '결혼 전에 배우자의 정치적 성향도 꼭 체크하라'고 말해서 함께 자지러지게 웃기도 했다. 오늘은 또 어떤 분을 만날까 하는 설렘 때문에 토요일이 기다려졌다.

한참 후, 무료 셔틀운행 봉사를 함께 한 동네 사람을 통해 종로구청에서 이 사실을 알고 '좋은 일했다'고 종로구청장이 상을 쥐서 축스럽지만 기쁘게 받았다.

그런데 실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때도 '무료셔틀 봉사'를 했었다.

그때는 무료 셔틀운행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경찰 한 명이 검문을 하며 '자가용으로 나라시를 했냐'고 추궁했다. '나라시가 뭔 뜻이냐고 물으니 '자가용 영업행위'란다. 내가 '돈 받는 영업행위를 안했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하더니 체크를 했다. 이게 10년 전 해프닝이다. 돌이켜 보면 정신없이 흘러간 1년여의 세월 속에 그런대로 건질만한 해프닝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경 · 조사

■ 팔순 ■

김경준(전주)10/05 석종현(관리)10/11 강연식(전주) 10/20
윤덕균(대구)11/05 윤석환(미주)11/13

■ 고희 ■

양영철(이사)10/12 박명규(편제)10/16 이기호(이사)10/16
金榮日(보도)10/27 양건승(업무)11/02 강철용(편제)11/13
이유호(편제)11/19 김만기(편제)11/20 이지현(ANN)11/28

■ 회갑 ■

최홍미(관리)10/07 윤병성(편제)10/18 이원표(관리)10/19
염영수(편제)10/20 김영운(기술)10/25 이장석(보도)11/01
노영남(기술)11/08 윤능호(보도)11/13 홍수선(보도)11/19
김상철(보도)11/20

■ 결혼 ■

이재은(보도)차남08/26 송호섭(관리)장녀09/09 한귀현(이사)장남09/16

■ 부음 ■

정환웅(편제)모친상07/31 이형균(ANN)모친상07/31
오학균(기술)모친상08/03 김순홍(대전)모친상 · 장두형(대전)장모상08/03
전한호(관리)상배 08/05 김정로(편제)모친상08/09
박두식(관리)장모상08/11 정종국(관리)장인상08/12
김수량(고문)장모상08/19 신선희(기술)부친상08/25
차동진(기술)장인상08/29 조일수(ANN)시모상08/30
이창우(편제)모친상09/01 김양배(편제)장모상09/03

회원 / 회비관리

■ 신규입회 ■

김성근(기술) 010-9199-5819 영등포구 국회대로 597

■ 평생회비 ■

김성근(기술)07/13

■ 연회비 ■

7월 : 이병준('07~'16) 이진섭('14~'17) 전영수('17, 80세 납부 끝)
8월 : 김순홍('17) 김종복('14~'17) 김철영('17) 석종현('17, 80세 납부 끝)
장두형('17) 정진민('17~'18) 조준희('17) 진수웅('17)
최호룡('16~'17, 80세 납부 끝)
9월 : 김양배('12~'17) 남의균('17, 80세 납부 끝) 문용수('17) 이방근('17)

번호 / 주소 변경

편제 : 김인규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116번길 58
김태인 은평구 연서로 77
김형태 서초구 서운로 201
박생섭 종로구 사직로 8길 20
박지희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강화남로 769번길
이진섭 수원시 영통구 웰빙타운로 20
조부성 강남구 자곡로 204-25
보도 : 윤재근 동작구 동작대로 39길 22
ANN : 이현우 경기 부천시 중동로 64
기술 : 조태영 010-9259-6917
업무 : 박수부 중구 다산로 32
관리 : 김기화 경기 화성시 동탄원천로 338-10
박성원 양천구 목동중앙남로 100
박태환 양천구 목동서로 70
위호인 관악구 솔밭로 7길 16
이의린 서대문구 북아현로 22길 67
최규두 경기 파주시 운정 2길 37-2
한윤희 송파구 중대로 24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신민철(관리)

7월 16일 별세했다. 향년 63세.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포구 인근 해상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의식을 잃었다. 1982년 입사해 사업부장, 건설기획단 부단장, MBC 아카데미 이사를 역임했다.



박우용(관리) 7월

31일 별세했다. 향년 64세. 2개월 전 폐암을 발견하고 투병 중 폐렴이 발병했다. 육군 대령 예편 후 2008년 7월 입사해 안전관리부장을 지낸 후 2011년 정년 퇴직했다.



이기섭(관리) 8월 16일

별세했다. 향년 71세. 몇 차례 담석 수술을 받고 휴유증을 이기지 못했다. 1980년 차량부에 입사, 수송 업무에 종사하다 1998년 명예퇴직했다.



김창식(보도) 9월

11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1세. 1965년 보도국 입사, 해설위원실을 거쳐 동경특파원과 포항MBC 사장을 역임했다.

임대

야당 중앙타워 (9층 건물 3000평 임대)

병의원 개원, 학원, 음식점 등 근생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에게 프리미엄 없는 사무실 임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1066-3
임대문의 : 김영자 011-9769-2955

시 공 사 : 세원종합건설(주)



삼송S프라자 (7층 건물 1600평 분양)

분양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628번지
분양문의 : 조정미 010-9408-3045

대 표 홍 석 진 011-230-7693

회/원/동/정



박수부(업무) 제로타리 3650지구의 2019~20년도 지구 총재로 지명됐다. 1993년에 로타리 활동을 시작한 박 회장은 그동안 지구 임원으로 수년간 국내외 봉사를 해왔으며 강화에서 '수하민예박물관'을 건립 중이다.



최성금(관리) 류유통회사(주)아신의 대표로 300여명의 정규직원과 천여 대의 지입차를 관장하고 있다.乙도 아닌 丙의 입장이 되고 보니 MBC에서 본의 아니게 甲질했던 일이 떠올라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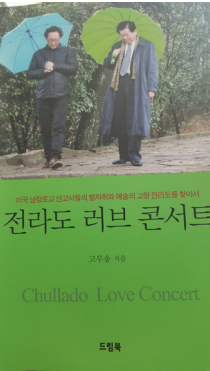
하동근(보도) 그동안 몸담았던 한국 케이블방송협회 PP협회의 회장을 사임하고 판교에 있는 외국계 벤처 회사 '화동 이노테크'의 Board of Management & Supervisory Chairman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경삼(편제) 현재 서울종합예술학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6, 17기에 이어 올해 18기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었다. 또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자문위원으로도 선임되었다.



고무송(편제) 한국교회인물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고 회장은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선교와 순교 발자취를 좇아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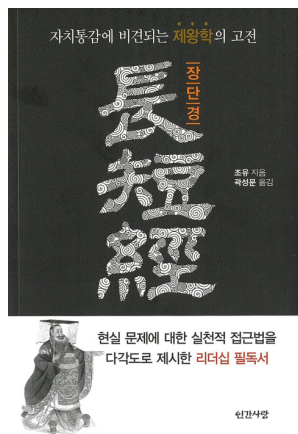


라남도의 여러 도시를 두루 탐방한 책 '전라도 러브 콘서트'를 출간했다. '영광 블루스', '강진 아라리오', '여수 랩소디' 등 각 도시마다 지역이나 사연에 걸맞는 상징적인 용어들을 소재목으로 붙여 내용을 음미하는데 도움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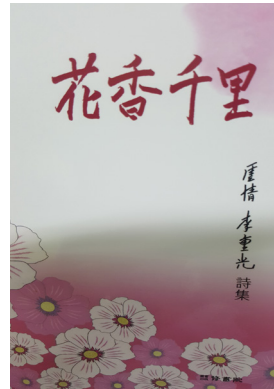
곽성문(보도) 중국 고전 '장단경'을 완역했다. 당나라 학자 조유가 저술한 '장단경'은 하은주夏殷周 삼대에서부터 당唐

의 통일에 이르기까지 역대왕조들의 흥망성쇠를 논의하고, 역대 제왕들의 통치와 권모의 실재를 서술한 책이다. 곽회원은 2016년에도 공자가 편찬한 '춘추'를 해설한 '춘추 공양전'을 국내 처음으로 완역, 출간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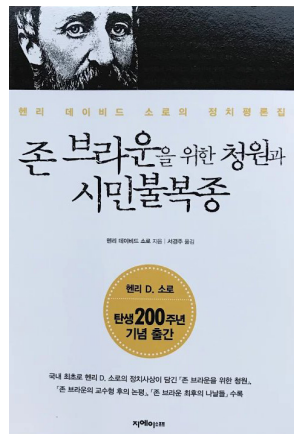
이중광(관리) 2011년 9월 시인으로 등단한 이후 세 번째 시집 '화향천리花香千里'를 출간했다. 77세 희수희壽를 맞

아 출간한 이번 시집에서는 '봄소식', '모정', '첫사랑', '경사', '추경', '풍경', '망향' 등 일곱가지를 테마로 한 77편의 시를 수록했는데,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온 시인의 깊은 감회를 곳곳에서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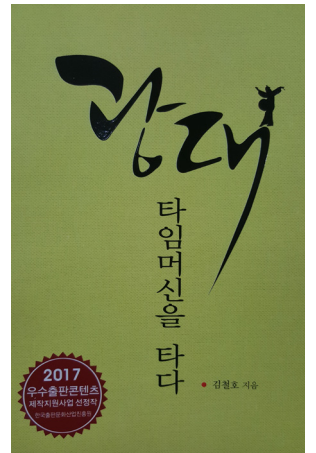
서경주(편제) '헨리 D 소로'의 정치사상이 담긴 책 '존 브라운을 위한 청원과 시민불복종'을 번역 출간했다. '월

든'으로 유명한 소로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번역 시리즈 중 하나다. 서회원은 이미 소로의 '나는 걷는다', '채식주의자의 논리'를 번역, 소개한 바 있다.



김철호(보도) 월간지에 3년여 동안 연재했던 명인명창들의 일대기를 보완한 책 '광대, 타임머신을 타다'를 출간했

다. 사회적 천대와 신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통 예맥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살아온 광대들의 발자취가 담겨있는 이 책은 '2017년 우수출판콘텐츠'로 선정되어 한국출판문화진흥원으로부터 1천만원의 제작비를 지원받았다.



권혁화(ANN) 한국고전번역원 부설 고전번역교육원의 3년 연수과정을 지난 8월11일에 졸업했다.

지난 2011년 3월 한문동호회가 발족하면서 한문공부를 시작하여 2014년에 시험을 거쳐 입학하여서, 그동안 1년의 휴학기간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5학기 만에 졸업한 사례로 역대 최초의 조기 졸업인 셈이다.

현재 한문동호회 2대 훈장으로 활약하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사우회원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다.

동/호/회/소/식

MBC 여자 아나운서들의 모임인 초록회(회장 임국희)는 6월 14일~16일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 20여년 이상 정기적으로 만나는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신입회원 조일수가 '우리 여행가요'라고 말을 꺼내더니 강력하게 밀어부쳐 성사된 것이다. 첫날은 나가사키에서 차이나타운과 데지마出島를 관광하고, 둘째 날은 운젠 유황 지옥 온천관광과 야나가와에서 뱃놀이를 즐겼다. 셋째 날은 하카다 타워와 다자이후 텐만궁 등을 구경한 뒤 모두들 즐거운 마음으로 귀국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어서 감사하다.

초록회 일본 나들이



(사진)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임국희 회장, 박찬순, 안종순, 남궁미, 노영인, 최운형, 정영희, 김채영, 서은선, 최화숙, 김선희, 조일수, 안주희,

한문공부동호회장 양진수(ANN) 이사

양진수(ANN) 이사의 건강 문제로 권혁화 훈장이 대신하고 있던 한문공부동호회장을 양이사가 다시 맡



았다. 한문공부동호회는 권혁화(ANN) 훈장을 중심으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논어를, 매주 목요일 10시에는 명심보감을 공부하고 있다.

주마간산走馬看山 스페인 기행



김 종 진(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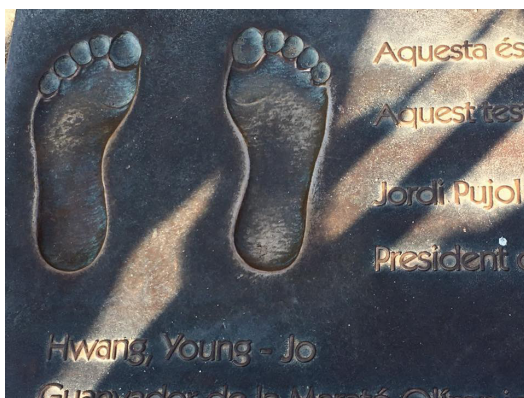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의 첫 만남은 가우디의 천재성과 신앙적 토대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의 최후의 작품 '성 가족성당' (사그라다파밀리아)이다. 성당 전체가 성경 그 자체이며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동과 경이로움의 한계다.



성 가족성당

2026년 가우디탄생 100주년에 완공된다고 한다. '성 가족성당'의 감동은 '구엘공원'으로 이어지고, 까탈루냐광장과 람블라스 거리를 지나 황영조의 신화가 남아있는 '몬주익 언덕'으로 향한다.

1936년 스페인 내전으로 베를린으로 옮겨간 올림픽에서 손기정이



황영조 선수의 발 모양



동판에 새겨진 태극기



스페인 광장

일장기를 달고 이룩한 비운의 우승을, 56년이 지난 1992년 황영조는 태극기를 달고 역사를 다시 썼다.

까탈루냐의 정신이라는 '몬세랏'. 신령스러운 기운이 감도는 바위산. 1362미터 길이의 케이블카가 데려다 준 곳에 '베네딕토수도원'이 있었고 그 안에 '검은 마리아상' 목각이 있다. 880년에 발견된 이후 치유의 기적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유명해졌고 1592년에는 까탈루냐의 수호성물로 승격된 '검은 마리아상'. 나도 성모님의 손을 잡고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했다.

ZARA라는 브랜드로 알려진 사라고사에서 하루 밤을 지내고 향한 곳은 수도 마드리드. 스페인광장, 솔광장, 마요르광장 등등 온통 광장들이다. 영화의 거리를 지날 땐 헤밍웨이를 생각했다. 스페인 내전 때 종군기자로 참전했던 헤밍웨이가 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는 스페인을 세계에 알린 일등 공신이다. 시벨레스광장을 지나 세계 3대 미술관 중 하나인 '프라도미술관'을 찾았다. 중세~20세기 초기까지의 작품 약8,000점을 소장하고 있다.

1868년 개관 이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벨라스케스의 작품 '시녀들', 접이식 형태로 천국과 현실 그리고 지옥을 그린 '패락의정원'의 화가 보쉬. 아담과 이브의 나

체화로 유명한 뒤러. '가슴에 손을 얹은 기사', '수태고지'의 작가 엘그레코. 44세에 궁정화가가 됐으며 평생 부정부패의 문란함을 겪으며 인간들의 우매함, 잔인함, 단

절된 자기 자신을 그렸던 프란시스코 고야. 그의 14개의 블랙페인팅 작품과 '웃벗은 마하'와 '웃입은 마하', 그림 속 13명의 인물들을 밀게 그려놓은 '카를로스 4세 가족', '마드리드1808년' 등을 본 것은 큰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성제로니모성



알함브라 궁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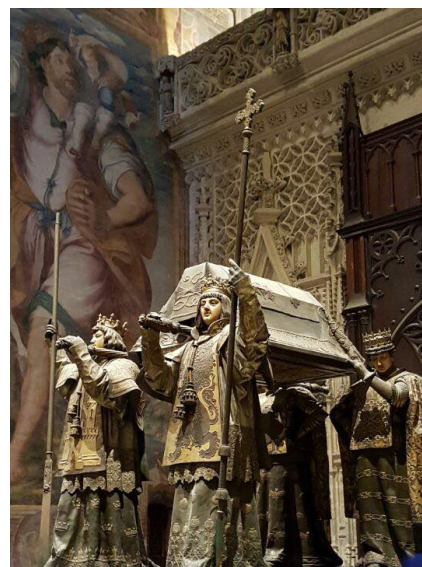


톨레도

당과 스페인왕궁, 레알마드리드 전 용구장까지 눈 속에 넣고 긴 하루를 마친다.

다음 날 찾은 곳은 가톨릭, 유대교, 이슬람 등 3개의 문화가 혼재된 중세유산의 보고 톨레도. 스페인의 수석교구이며 가톨릭의 총본산인 '톨레도 대성당' 안에는 22개의 소성당과 18명의 추기경의 묘가 있다. 순례객의 수호성인인 거인이 아이를 앓고 물을 건너는 거인화도 볼 수 있었다. 세계 3대 성화인 엘그레코의 작품 '오르가스백작의 장례'를 보기 위해 근처에 있는 산토토메교회에 들렀고,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만나러 콘수에그라를 향했다. 오늘의 종착지는 그라나다! 이슬람 마지막 왕조가 자리 잡았던 곳. 거기에 알함브라 궁전이 있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며 현존하는



콜럼부스 유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알함브라 궁전! 알바이신 언덕 위에 '붉은 성'이란 뜻이다. 알함브라궁전 안에는 카를로스 5세 궁, 알카즈바 요새, 나자렛 궁, 헤네레리페 정원이 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르길 2시간! 설산 같은 산정을 지나자 해발 780미터에 인구 3만의 작은 마을 '론다'가 눈에 들어온다. 헤밍웨이가 집필하며 머물렀던 곳, 날개가 꿈에도 찾던 곳. 이곳엔 또 하나의 강력한 콘텐츠가 있다. 1785년에 지은 최초의 원형투우경기장 그리고 전설의 투우사 페드로 로메로. 6천여 마리 우공들이 그에게 당했다.

'큰 강이 있는 곳에 둔치'라는 뜻의 '세비아'.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대되는 도시다. 안달루시아 지방의 전통적인 민요와 향토무용, 그리고 기타 반주 세 가지가 일체를 이루는 민족예술의 극치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플라멩코. 빨간 옷을 입은 무희의 춤이 마치 뛰는 불꽃같다는 뜻의 플라멩코. 1402년부터 100년이나 걸려 지은 '세비아 대성당'.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성당이다. 70미터 높이의 바람개비라는 뜻의 히랄다첨탑이 있다. 1번에서 시작되어 34번까지 지그재그로 오르다 보면 28개의 종이 매달린 거대한 종탑을 만난다. 성당 안에는 도미니카, 쿠바, 스페인을 전전하던 콜럼부스의 유해가 4명의 스페인 왕에 의해 공중에 들려 안치되어 있는 곳이다.

스페인 외에도 모로코와 포르투갈을 여행했지만 지면 관계로 생략한다. 대서양의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시며 10여 일간 세 나라 20여 곳을 두루 돌아다닌 꿈같은 시간을 하나하나 더듬어 본다.

참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히)스토리가 있는 사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보는 것만으로 공감이 되는 사진, 사진 속에 역사와 애깃거리가 담겨있는 '히)스토리가 있는 사진'코너입니다. 여기 소개하는 사진들을 보시고 덮어뒀던 옛 앨범을 한번 뒤적여 보지 않으시렵니까. 그래서 찾아낸 귀한 사진들의 이야기를 공유하시면 어떨까요. 사우회원님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촬영된 시기는, 내가 취재차 탑승했던 경찰 경비행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죽을 고비를 겪고 운 좋게 살아났던 그 이듬 해 쯤이니 1978년으로 기억된다. 보도국 경제부의 막내 기자로서 사수(射手)인 김상기 선배(왼쪽, 머리숱이 많지 않은 분)와 내근 당번을 하고 있을 때의 한 장면이다. 출입처에 나가 있는 선배들이 부르는 기사를 두 사람이 정신없이 받아쓰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니 좀 안쓰럽다. 당시 정동 사옥의 경제 상태가 별로(?)였는지 천정의 형광등은 에너지 절약 중이고, 명색이 기자인데도 책상 위에는 제대로 된 책자가 눈에 띄지 않고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그땐 대체로 그랬다. 당시 경제부장은 임동훈 선배였는데 2년 후인 1980년, 임 부장이 해직되자 신대근 차장이 눈물을 뿌리며 부장직무대리로 임명되어 경제부 데스크를 맡았던 장면이 눈에 선하다. 참 자상한 성격이던 김상기 선배는 재작년에 세상을 떠났다.



엄 기 영(보도)



정 수 열(편제)

1989년도로 기억하니까 거의 30년 사진이다. 라디오 드라마 “정치 다큐멘터리 격동 30년”을 기획하여 첫 방송한 것이 88년 3월이었으니까 89년이면 그야말로 인기가 치솟는 중이었다.

연출에 열중하고 있는 30대의 나. 앞자리에 앉아 미싱하고 있는 사람은 기술국 서기봉 사우.

감독관처럼 내 뒤에 서 있는 분은 작년에 작고한 작가 이영신 씨다. 제작 현장에 자주 나와 작품의 흐름을

모니터하시곤 했다.

애당초 '격동30년'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했던 이 드라마는 해방 이후 30년간의 각종 굵직한 사건들과 비화를 극화해서 20년간 방송하다가 나중에 '격동50년'으로 제목을 바꿨고, 2009년 10월에 '경영효율성'때문이라는 이유로 막을 내렸다.

AR, VR이 등장한 동영상 시대라지만 '한 장의 사진'이 주는 감동과 추억 또한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 같다.

라디오의 역할이 '한 장의 사진'과 같다면 무리한 비유일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라디오가 새로운 시도와 다양한 포맷으로 청취자들의 가슴에 영원히 추억과 감동을 전해주는 날이 돌아오기를 기원해 본다.



김 기 덕(ANN)

1973년 여름. 오전 7:15~7:40에 매일 방송되던 종합 정보 프로그램 '라디오 소식통'의 현장 리포팅 준비 장면이다. 메인MC는 차인태 선배였고 나는 고정 리포터였다. 어느 학교의 강당 신축 소식을 전한 날로 기억한다. 당시만 해도 MBC 로고가 선명한 라디오 중계차 FM카의 위력은 대단했다.

FM카가 현장에 도착하면 사람들이 “야, MBC다”하면서 우리 주변을 에워싸는 게 다반사였다. 입사 1년차라 인터뷰 순발력도 기르고 세상 경험도 할 수 있어서 '내 일이거니' 생각하며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방송이 끝나면 아침 식사를 해야 하는데 밥값을 안줬다. 쟈 기억에 남는 일은, 현충일에 국립묘지에 갔을 때다. VIP가 온다고 국립묘지 안으로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경비병들과 승강이 하고 있는데 차 선배가 '중계차 나오세요'했다.

화가 잔뜩 나 있던 터라 '아니, 대통령 온다고 중계차를 못 들어가게 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라고 노골적으로 울분을 터뜨렸다. 뜻밖의 얘기에 MC가 당황해하는 것이 눈에 선했다. 회사에 돌아와서 질책을 당하긴 했지만 젊은 혈기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시절이 다시 온대 도 또 그렇게 할 것이다.



유럽 4개국을 자전거로 달리다(I)



김용빈(기술)

1) 출발 전에
스위스, 이태리, 오스트리아, 독일 4개국 자전거 투어 프로그램에 아들과 가려고 했는데 아들녀석이 “아마 추어들 가시는



데 따라가서 민폐 끼친다”며 나 혼자 가란다. 할 수없이 혼자 등록했다. 월, 수, 토요일에 훈련 겸 동호회 정달자(정으로 달리는 자전거) 모임에 참석했다.

첫 번째 훈련은 4월12일 잠실-양재천-과천-안양천-목동-여의도-잠실까지 약 80Km를 도는 코스로 20명 남녀회원 모두 나이가 지긋해 친구들을 만난 기분이다. 출국하기 전까지 평균 80~110Km 훈련을 15회 했다.

5월 24일 경기도 광주 도마치 고개, 양평 중미산 고개, 한계령을 지나 필레 계곡과 은비령, 용문 보리 고개, 말치고개 등 많은 오르막 내리막 적응 훈련을 끝으로 여행 준비를 마치고 휴식을 취했다.

5월 30일 아침 일찍 자전거와 배낭, 핸드캐리 백을 들고 공항에 들어서니 사람들이 쳐다본다. 19개의 자전거 박스와 짐을 부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2) 여행 시작

12시간여 비행 후 스위스 취리히 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8시. 아직 해가 지지 않아 주변이 잘 보인다. 오기 일주일 전부터 매일 확인한 일기예보는 4일간 매일 비가 온다고 해 스위스 여행은 포기상태로 도착을 했는데 웬걸, 날씨가 너무

맑고 쾌청하다. 공항에서 시내로 오는데 고속도로가 밀려서 늦은 밤에야 호텔에 도착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밖으로 나가보니 연초록으로 둘러싸인 주변과 산봉우리는 하얀 눈으로 덮여있고 검푸른 나무숲사이로 흘러내려오는 물줄기와 하얀 거품을 내고 떨어지는 작은 폭포는 마음을 흥분시킬 만큼 아름답고 신선하다. 맑고 깨끗한 공기는 호흡을 할수록 마음을 안정시키고 활력소를 공급해주는 듯하다.

큰길에는 머리만한 쇠종을 목에 달고 덩그렁 덩그렁 소리를 내면서 소떼가 오르막길을 오르고, 긴 막대기 하나로 그 소들을 몰고 가는 목동의 모습과 소떼가 지나갈 때까지 깜박이를 켜고 기다리는 자동차들, 모두가 그림 같다.



아침 식사 후 자전거를 조립하고 라이딩을 시작했다 낮은 오르막으로 시작되는 고개 길을 하나 넘고 두 번째 고개 오르막이 ‘조금 힘들다’ 생각하며 오르는데 또 오르미 나타나고 ‘힘들게 다 왔구나’ 생각하면 다시 구부러진 고개를 넘어 한참을 가다보니 평지가 나온다. 이렇게 깊은 산중에도 자전거길이 잘 만들어져 있다. 세 번째 가파른 오르막을 올라 계곡으로 내리막을 내려가니 편편한 평지가 나왔다. 총 40Km의 몸풀기 라이딩을 마치고 이곳의 아이스크림을 맛보면서 버스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다.

다음날 아침 일찍 식사를 마치고 버스로 한 시간 이상 이동하여 도착한 곳은 루체른이다. 루체른은 알프스 산이 병풍처럼 뒤 배경을 이루고 아름다운 호수를 앞에 두고 있어 호수에 비치는 주변의 그림 같은 풍경이 볼만한 도시다. 장 누벨이 설계한 카펠교Kapell Brücke 목제다리는 루체른의 랜



드마크로, 한때 화재로 전소된 후 완벽하게 복원됐다. 타고 남은 목재 일부를 복원하는데 사용해 또 다른 구경거리를 만든다.

11시부터 라이딩을 시작해 Weggis에 도착해 점심식사를 마치고 산악 열차를 타고 알프스

거음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인다. 유럽에서 가장 높고 넓은 지역의 스키장으로도 알려져 있다. 산악 열차를 타고 알프스의 전경을 보면서 올라갔다가 하산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산세와 풍경 멀리보이는 설산의 위엄은 우리 인간의 작은 모양을 아는 것 같아 머리가 숙여진다. 우리 일행은 스위스 브리그로 이동해 여장을 풀었다.

스위스 브리그는 이탈리아로 넘어가는 길목이다 일반 여행객은 열차를 이용하지만 우리는 버스로 안데르마트로 이동해 오전에 45Km 정도 라이딩을 하고 점심식사를 했다. 다시 버스로 Grimselpass(해발 2,164m) Furkapass정상까지 이동한 후 자전거를 내려 라이딩할 준비를 한다. 알프스의 정기를 받기 위해 모두가 입을 벌려 호흡을 하고 고갯길 카페에서 커피도 한잔 맛봤다. 정상에서 고개 넘어 500m 정도 가니 알프스 높은 산에서 흘러내려온 물로 만들어진 큰 호수가 나온다. 주변은 눈으로 덮여 있고 길목에는 눈과 얼음으로 길 주변이 막혀있는 내리막의 짜릿함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준다. 까마득하게 보이는 하향길 약6Km를 내려와 앞에 있는 오르막길로 계속 오르려니 몸이 무거움을 느낀다. 시원한 바람이 마음과 몸을 청소 시켜주는 기분이다. 호흡을 조절하고 천천히 오르기 시작해 3Km 정도 지나 마지막 가파른 정상을 오르려는데 비를 만났다. 하향길이 위험하니 그만 하산하자고 일행들과 의견을 모으고 중도에서 방향을 바꿔 내려갔다. 쾌적하고 맑은 공기, 하얀 눈으로 뒤덮인 산, 깊은 계곡의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스위스를 오늘로 이별하고 이태리로 향한다.(계속)

월산회月山會 울릉도, 독도 탐방기



최병태(관리)

‘월요일에 산행하는 모임’(월산회)에 서는 회장 신원호(기술)를 비롯해 김진홍(관리), 김수량(기술), 박종규(기술), 유흥철(관리), 윤홍섭(보도), 이원하(기술), 김종현(기술), 정광수(기술), 김성한(관리), 최병태(관리) 등 11명이 4박 5일의 일정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여행했다.

5월 22일(월) 오후 동서울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세 시간 쯤 달려 강릉에 도착. 미리 예약한 안목해변 인근 모텔에서 일박했다.

5월 23일(화). 오전 8시, 쾌속선 SEA STAR호에 승선. 배는 망망대해를 헤치며 울릉도를 향해 달렸다. 강릉↔울릉도 간 약 180km의 거리를 달리는데 2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니 배의 속도는 대충 70km 정도로 짐작된다. 향해 40여분 정도 지날 즈음, 돌고래 무리들의 군무가 펼쳐졌다.

쾌속선과 경주를 하자는 듯 수면 위로 넘실대며 한동안 배 옆을 따라오는 광경은 불과 2~30초 정도의 짧은 시간이지만 장관이었다. 2시간 40분 정도 향해 끝에 마침내 울릉도 저동항에 도착, 숙소가 있는 도동항으로 이동해 여장을 풀고 점심식사 후 바로 울릉

도 해안도로를 따라 A코스 관광 일정을 시작했다.

1883년 첫 개척민 16가구 54명이 울릉도에 입주한 이래 한 때는 3만여 명의 인구가 북적대기도 했으나 지금은 오징어 생산의 감소로 인해 9천여 명이 거주할 뿐이다. 울릉도는 3無(도둑, 공해, 뱀), 5多(향나무, 바람, 미인, 물, 돌)의 섬으로 각종 천연기념물과 수려한 자연경관이 빼어나다.

울릉군의 유일한 자연포구로, 마을 양쪽으로 골짜기가 깊고 좁아 통처럼 생긴 마을포구 앞에 거북바위가 마을을 향해 기어가는 듯한 모양을 보고 ‘거북이가 통으로 들어간다’는 뜻의 통구미,

송곳산 해발 270m 지점의 바위 틈에서 초당 220L로 솟아오른 물을 저수하여 수로를 통해 발전하는 추산 수력발전소(시설용량 1,400kw로 울릉도 사용량의 약 15~20%를 담당한다), 코끼리가 코를 물속에 담그고 물을 마시는 모양으로 표면은 주상절리 현상(용암이 급격하게 식어서 굳을 때 육각 기둥모양으로 굳어져 생기는 지형)에 의해 코 부분에 직경 10m의 구멍이 있어 소형선박이 드나들 수 있다는 코끼리바위.

해발 400미터에 위치한 동서 약 1.5km, 남북 2km로 면적 605,000평의 울릉도에서 유일하게 넓은 평지로 외륜산이 병풍처럼 둘러 쌓여있는 나리분지 등의 명소를 구경했다.



특히 나리분지는 울릉도의 오랜 거주 형태를 보여주는 너와집과 투막집으로 유명하며, 나리분지 주막에 전통주 씨겍데기 막걸리(10가지 곡물의 겍데기로 주조된 술)라고 쓴 문구를 본 일행이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간단하게 목을 축이면서 나리분지의 정취를 느껴본다.

숙소로 돌아와서 흥철 형이 가져온 양주와 종규 형이 가져온 홍주 등으로 흥겨운 파티를 열었다.

5월 24일(수) 5시 반에 기상해 서둘러 아침식사를 하고 사동항으로 이동. 07시20분 출항하는 돌핀호에 승선. 울릉 저동항에서 독도까지 87km, 약 2시간 소요. 향해하는 내내 독도에 접안할 수 있을지 없었지가 관심이었다.

흔히 ‘3대가 덕을 쌓아야 가능하다’는 독도 접안. 운이 좋았는지 독도수비대원들이 일렬횡대로 서서 거수경례로 맞이하는 모습을 보며 독도에 발을 딛었다, ‘태극

기를 들고 독도에 발을 딛는 순간 애국심이 저절로 생긴다’고 했는데 그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었다. 선명한 하늘과 푸른 바다가 펍 인상적이었다. 다른 일행이 가져온 “태극기”와 “독도는 우리땅”이란 현수막을 빌려서 인증 샷을 여러 컷 찍었다.

얼마 후 뱃고동 소리를 신호로 흠뻑 젖었던 400여명의 승객들이 승선하고 회항했다. 30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벅찬 감회를 느꼈다. 독도탐방을 마치고 울릉도에 돌아와 중식 후 울릉도 984m 고지 성인봉과 B코스 관광(봉래폭포와 풍혈동굴, 바다를 배경으로 죽도와 관음도를 조망한 후 일주도로를 왕복)을 했다.

5월 25일(목) 저동항으로 이동, SEA STAR호에 몸을 실었다. 점심은 안목항에서, 저녁은 동서울터미널 인근에서 한 후 즐거웠던 울릉도(독도)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귀가했다.

더케이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출자한
The·K 에다함상조

대쪽보다 올곧은 정직의 예



에다함

에다함은 한국교직원공제회 100% 출자한 상조회사입니다.
믿음과 정직이 먼저라는 스승의 가르침을 이어
상조회사의 본보기가 될 1등의 예를 만들고 있습니다.

※ MBC 사우회와 2017년 8월 16일 업무협약 체결!
(사우회원과 가족에게 최고의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 국내 최대, 자본금 500억원
· 공정위 '2016년 상조업 주요정보 공개' 보도자료 기준
· 국내 유일, 한국교직원공제회 연대 지급보증

· 국내 최대, 3개 은행사 지급보증
·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 국내 최고 수준, 지급여력비율 114%

· 3개년 연속 흑자 실현(총 79억)
· 자산증가율 28%
· 총 자산순위 상위 4개 업체 중 1위 (2016년 기준)

가입문의 1566-6644
www.yedaham.co.kr

